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도 제5호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선교**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선교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한처음의 창조 이래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자
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라크 카리코사 - 파괴속에서도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작은 칼럼은 제가 ACN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으로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고통받는 교회 사이에 사랑과 믿음의 다리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각자의 장소에서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ACN의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그리고 사업에 조력하는 이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한 선택을 항상 알리려고 노력한다면,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 형제들 역시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줌으로써 그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 눈을 뜨고 관심을 갖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선교'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을 '특별 선교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교황님은 사목 서한에서 선교에 관한 교황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며 이를 언급하시고 특별 선교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선교 활동은 오늘날 교회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며, 따라서 선교와 관련된 사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항구적인 선교 태세'를 유지합니다. 특별 선교의 달이 선교 활동을 장려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선교의 정수인 기도를 더욱 충실히 하는, 깊이 있고 보람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구적인 선교'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리지외의 소화 데레사 성녀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녀님은 수도원 밖을 나선 적이 없는데도 세계 선교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저의 모든 힘은 기도와 희생에서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무적의 무기입니다. 기도와 희생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영혼을 움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성인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묵주기도야말로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더 깊고 더욱 어린이 같은 헌신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특별 선교의 달인 10월이 묵주기도 성월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소의 교황'이라 불리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은 교리교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 아이를 수면용 그물에 누인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아이어머니는 그물 위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이가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응, 내 보물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묵주기도가 지루한 기도인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묵주기도는 평화와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모님과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샘솟는 끊임없는 운율과 같으며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노래처럼 영혼을 평화롭게 합니다. 혹시 고차원적이고 신학적인 섬세함을 추구하시나요? 가난한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에게는 그런 것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루카 18,16 참조). 특별 선교의 달인 이번 10월에 묵주기도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교사의 사랑과 더불어 모든 이의 마음에 불을 밝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볼리비아 선교사의 집 공사 현장

교회 학자이자 선교의 수호성인인 리지외의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걸은 길은 오직 신뢰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믿는 만큼 당신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교를 할 때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볼리비아** 엘알토교구 ‘노동자 성 요셉’ 성당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선교사를 위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선교 수도회’ 회원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남미에서 성소의 위기로 고통받는 국가 중 하나인 볼리비아의 이 수도회는 선교를 위해 사제와 신학생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이곳 회원들은 연령대가 다양해서 가족처럼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성 담당자가 신학생들을 동반하며 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과 조언을 주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과 친숙한 분위기 덕분에 이곳 청년들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지 않는 청년, 하느님께 더욱 깊이 헌신하게 하는 활력의 원천인 정결, 그리스도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순명이 바로 이 수도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수도회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공예와 밭일 등을 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부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집을 선교사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곳은 수도회의 중심이 되어 볼리비아의 다른 여러 교구로 선교사들을 파견할 것이며, 이들은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중심에 두고 일할 것입니다. **ACN은 선교사의 집 건설 비용으로 약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서부 마인티라노교구는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입니다. 교구장인 구스타보 봄빈 에스피노 주교에게는 선교 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인구 중 과반수는 토착 신앙을 믿습니다. 구스타보 주교는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소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구스타보 주교와 사제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구스타보 주교는 선외 모터가 달린 튼튼한 배를 구하는 중입니다. 배가 있으면 구스타보 주교와 사제들은 해안과 강을 따라 이동하며,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450km 뻗어 있는 교구 관할 구역을 자동차로 다니려면 사흘이 걸리는 데다가 비용도 비쌌습니다. **ACN은 마인티라노교구가 보트를 장만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약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도 중부에서도 아직 그리스도교가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다교구는 선교 지역입니다. 교구장 에프렘 나리쿨람 주교와 교구 사제, 부제와 수녀들은 집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 여러 가정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집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어 주고, 세례를 비롯한 성사를 준비합니다. 이들은 이를 ‘**폴뿌리 선교**’라고 부르면서 3년짜리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찬다 지역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ACN은 찬다교구의 활동을 위해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ACN이 지원한 모터보트 앞에서 구스타브 봄빈 에스피노 주교



‘폴뿌리 선교’ 중인 인도 찬다 교구 사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살기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1965)에는 “하느님은 혼인 생활을 창조하신 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혼인 성사는 교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혼인 성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찾은 결과로써,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부르신 창조주 하느님을 찾은 결과로써, 사람과 하느님이 참으로 함께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모든 문화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문화권마다 그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불륜과 성매매 등으로 인해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단지 한 사람에게만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면 남은 자녀와 배우자가 고통받게 됩니다. 케냐 서부 키슈무 대교구장 필립 아놀로 대주교는 자연적 가족계획을 포함한 가정 사목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합니다. 아놀로 대주교는 “이를 통해 키슈무 교구의 가정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시도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한 부부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교구 내 45개 본당에서 다른 부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1년에 380쌍의 부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ACN은 아놀로 대주교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부들을 위해 1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글라데시 주교회의는 가정을 위한 3년 계획 프로그램의 초점을 혼인 생활에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숙한 부부들을 선발해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사는 것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는 것’임을 설명하고 ‘부부로서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법’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과 더불어 결혼과 자연적 산아제한에 관한 성경적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3년에 걸친 프로그램의 결과로 부부 95쌍이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교적인 혼인 및 가정생활을 교육하고 가정을 ‘하느님의 걸작’이라고 표현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절단으로 탄생했습니다. ACN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해마다 약 8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옛 소련 지역에서는 지금도 교회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가 여전히 통상적인 산아제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약물 복용자 수와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벨라루스 주교회의의 결혼과 가정 위원회는 2019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세미나와 출산 전 교육 코스, 심리 치료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정과 가정 운동 학술회도 진행합니다. ACN은 교회가 은혜로운 혼인과 가정생활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분투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약 9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에이즈에 맞서 싸우며 결혼 생활의 행복을 증진하는 케냐 사람들



방글라데시의 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들



가정의 편에서 일하는 벨라루스 사제



여름 캠프 중 미사 봉헌



성지 순례에 대해 알려주는 세실리아 수녀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스러운 땅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6-37)

어린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며 교회의 미래입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구에 속하는 가톨릭 신자 18만 명은 매년 자녀들을 위해 여름 캠프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구 내 총 55개 본당 중에서 36개 본당의 어린이와 청소년 약 6천 명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서 사제들과 청소년 지도자, 교리 교사들이 2~4주 과정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에는 스포츠, 연극, 미술, 지역 사회봉사, 교리 수업과 더불어 다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 활동하셨던 장소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정 대부분, 특히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사는 이들은 2주가 넘는 캠프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캠프 활동을 즐기면서 얻어 가는 것은 보조금과 같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온 4~14세 어린이와 청소년 150명은 중동 지역에 자신과 같은 다른 아이들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안전이 미래에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마음의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자렛에서 온 어린이 60명과 **요르단** 스마키에에서 온 5~12세 어린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이들은 수공예 시간이나 극장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농구와 축구 경기를 하면서 반칙을 저지르면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서로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이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평화의 기초’이기 때문에,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서리는 여름 캠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ACND 약 40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르 10,14)

ACN 어린이 성경 40주년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어린이 성경이 처음 발표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브라질 남동부 과라팅게타에 있는 '희망의 농장'에서 한 어린이로부터 천만 번째 발행된 포르투갈어 어린이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대교구장 시절 ACN 어린이 성경 수천 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발행 시작부터 40주년 맞이한 2019년 6월까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총 51,188,209부가 배포되었습니다. ACN은 지금도 매일 전 세계로부터 어린이 성경 지원을 요청받습니다. 많은 본당과 교구, 수도회에서 인쇄비 등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파키스탄의 7개 교구에서 우르두어로 번역한 어린이 성경 8만 부,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에서 이콘 삽화를 넣은 어린이 성경 5만 부, 멕시코 북부의 타라우마라 교구에서 어린이 성경 1만 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각 약 6500만 원과 3400만 원, 125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ACN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CN은 어린이에게만 아닌, 자녀들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부모들에게도 성경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세계 최빈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어린이 성경입니다. 모잠비크의 오토리노 신부는 “작은 책 한 권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며 ACN에 감사 편지를 전해

왔습니다. 토고에 사는 13세 소년 디외도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라고 편지를 썼으며, 알바니아 소년 미하일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감옥의 한 수감자가 보낸 편지에는 “저는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있으며,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작은 성경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 성경의 형태로 된 밀 이삭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앞으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가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성경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1979년 처음 어린이 성경을 발행한 이래로 이 작은 책에는 축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5100만여 개의 밀 이삭은 후원자 여러분의 자비로운 도움에 힘입어, 수많은 어린이들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콥트 가톨릭교회는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아이들이 성경에 관심 갖게 하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6개월 동안 이어지며 최종 결선에는 상위 100명이 참가합니다. 대회는 특히 신약성경에 비중을 두는데, 처음 한 달은 마태오 복음서를 다루고 그다음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를 한 달씩 다룹니다. 이번에는 12~18세 어린이와 청소년 3,500명이 참가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 9월에 최종 결선 참가자들이 주말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대회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경을 배부하고 대회를 조직하며 주말 숙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 지역의 가난한 가톨릭 공동체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사도 1,8)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ACN은 이 대회에 약 6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쿠바 신자들을 위한 성경 표지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총 7,350여 개에 이르는데 그중 692개 언어로 신약과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것은 1,547개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끝 날까지 전해지는 날까지(마태 28,18-20 참조),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CN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성경을 가진 것만으로도 위협받는 지역과 중국처럼 주민들이 반 그리스도교적 독재 치하에서 수십 년간 무신론 이데올로기를 교육받은 지역 등에 살면서 교회가 승인한 형식의 성경을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성경 지원 요청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쿠바는 60년 가까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해 온 국가이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교황 방문 이후 신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바나대교구장 후안 데 라 카리다드 가르시아 로드리게스 추기경은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쿠바 국민 사이에 만연해진 무력감을 극복하고, 복음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렉시오 디비

나(거룩한 독서)와 기도, 명상 등을 지도하려 합니다. 쿠바에서 성경 한 권 값은 약 5,300원입니다. 컨테이너 한 대당 성경 15,120권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는 다른 10개 교구 신자들도 새롭게 복음화하기에 충분한 분량입니다. **ACN은 가르시아 로드리게스 추기경에게 필요한 비용 약 8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교리서와 성경은 소수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언어로도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 교리서 <유캣(YOUCAT)>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유캣> 시리즈 중에는 첫 영성체와 견진 교리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유캣>은 벌써 500만 부 이상 발간되었지만, 젊은 세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인터넷 보급도 필요합니다. **이에 젊은이들이 교리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도록 <유캣> 시리즈를 모두 디지털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복음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리 수녀와 일렉스 수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수련 수녀들과 함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수녀들

“사람의 영혼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적인 힘이고 다른 하나는 관상적인 힘입니다. 이 힘으로 사람은 진보하며, 이 힘으로 사람은 목표에 다다르게 됩니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은 젊고 관상적이지만 수도원 안에서만 살지 않는 새벽의 별 마리아 수녀회 수녀들의 지침과도 같습니다.

수녀들은 청년들과 함께 침묵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014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새벽의 별 마리아 수녀회는 현재 1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수녀들의 수는 300명에 이릅니다. 이 수녀회는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대교구에서도 3년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회헌에 따라 새벽 5시에 드리는 첫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과 중에는 신자들이 찾아와서 수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수녀들은 여러 마을로 나가 여성들의 가사를 돕거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기도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교입니다.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나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앞둔

날에는 청년들이 수녀들에게 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수녀원 성당에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년들은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년들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확고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은 무엇보다 성경과 교황들의 회칙을 주로 활용하여, 6명씩 소그룹을 구성해서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수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모범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은 청년들을 설득하여 이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 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프랑스, 대만, 카메룬에서 온 수녀 4명이 와가두구대교구 내 야그마 마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어느새 그 수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수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수녀 7명이 임대료, 생활비, 교통비, 의약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충당하는 데 매달 거의 130만 원가량이 듭니다. 그중 몇십만 원은 직물, 자수, 부활절 양초 장식 등을 만들어서 충당하곤 하지만, 수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수녀들도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7명의 수녀들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ACN**은 수녀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약 **67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베를 짜는 모습



아이들과 기도하는 모습

이는 내 몸이다

ADORO TE DEVOTE, LATENS DEITAS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얽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는 이 신앙의 신비를 꿰뚫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보고 맛보고 먼저 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산인 성체 성사를 찬송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표징이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빵의 형상 속에 존재하는 신성과 인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얼마나 크게, 넓게,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인간의 부족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으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 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체는 하느님 현존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거행하는 사제들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제들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성체로 현존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전 세계에서 22초마다 ACN 후원자들의 지향에 따른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삶의 선물이 됩니다. 우선, 신자들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과 일치하여 신성에 참여하며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영혼을 채워주는 영원한 생명의 빵을 하늘로부터 받으면서, 동시에 ACN 미사 예물로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지상의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의 사제들에게 미사 예물은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ACN은 전 세계 사제 10명당 1명에게 미사 예물을 전달해 돕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카손고 교구 신학교 학장인 브루노 살레 신부는 “미사 예물은 이 신학교 교육자들을 지원하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연대의 증거”라고 하면서 먼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그다음으로 호의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레고리안 미사 20대를 집전하면서 봉헌한 미사 예물로 살레 신부와 그의 동료 신부 4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체성사를 통해 여러분과 가까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레 신부는 “후원자분들이 새로운 복음화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들을 신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는지, 또 교회의 미래를 얼마나 확고하게 신뢰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커르섬 사도 바오로 본당



콩고민주공화국 카손고교구 신학교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깊은 연대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순교자의 고통을 겪으며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휴가 때 쓰려고 모아 둔 돈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을 고통받는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가장 가난한 교회를 돕는 데 써 주십시오.

확고한 증거

상상하기조차 힘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은 오직 말로만 서구나 이슬람 문화가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응답은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확고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교 활동의 원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희 자매들에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여윌돈이 없을 때에도 ACN에 기부금을 보내셨습니다. 2011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의지를 물려받아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참된 그리스도교 활동의 원천인 신앙의 핵심을 강하게 상기시켜 주는 <사랑의 메아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도 신부님의 글에서 강조한 문장들 중에서, 특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제가 일상생활을 하며 떠올리는 두 문장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모든 빛과 영적 힘과 희망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부부와 가정을 위해

저희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모은 3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와 가정을 위한 사업에 이 기부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소임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며, 여러분의 위대한 소임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평화롭게 해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온기를 주시고 복음의 햇빛을 밝혀 주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도록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매일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키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예수님을 돕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와 기도를 통해 이들을 도움으로써 이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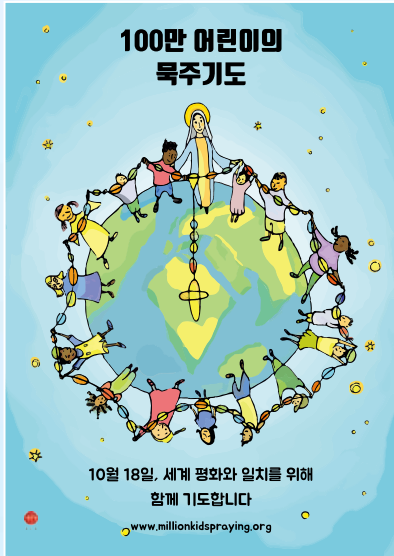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어린이들의 기도 사슬이 오세아니아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지나 아메리카까지 이어집니다. 매년 10월 18일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목주기도를 바쳐 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어머니들이 10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 여럿이 나무 아래 무리 지어 자신의 가족과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 목주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은 어린이들만의 비밀이었지만, 더는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같은 시간에 목주기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먼저 어린이들을 도왔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교리 교사와 수녀, 학교 교사, 부모는 물론 조부모들까지 목주기도 캠페인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에 사용되는 자료의 번역, 인쇄, 발송, 행사 및 웹사이트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ACN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목)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주기도 캠페인 자료는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올해 ‘100만 어린이들의 목주기도’ 캠페인은 특별한 지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교 지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데 목주기도만큼 큰 힘을 주는 건 없을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목주기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명력 있게 이어 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곧 선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00만 명의 어린이들도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해 목주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마리아님께 드리는 어린이 봉헌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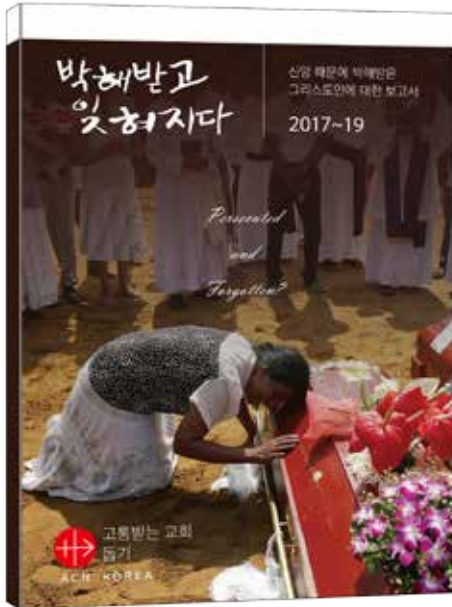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 하는 모든 것,
저의 온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을 당신께로 한 명, 한 명 데려와
제 마음속 사랑 안에 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축복하고 보호해 주소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
당신을 저의 어머니로 사랑하며
당신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어머니, 저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길 원합니다. 아멘.





박해받고 잊혀지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서
2017~2019

〈박해받고 잊혀지다〉는 ACN이 2년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박해를 조사하여 엮은 보고서입니다. 2019년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감했는데, 일부 공동체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악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서구권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의 대안으로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보고서는 2019년 11~12월 중으로 무료 배포 및 일괄 발송되며, 재고 소진 시까지 휴대폰 문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전에는 <그들은 무명 순교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박해받고 잊혀지다〉 신청하기

☎ 010-7475-6440

위 번호로 이름, 세례명, 주소, 부수와 함께 문자(sms)를 보내 주세요.

🌐 bit.ly/pnfreport

위 링크에서 신청 폼을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cpbc TV 하느님의 눈물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현지 교회의 사제, 주교들이 출연하여 고통받는 교회의 생생한 현실을 증언하는 tv 프로그램 '하느님의 눈물'이 cpbc가톨릭평화방송에서 2019년 10월 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 8회 방영됩니다. cpbc tv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cp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ACN 산하 CRTN에서 제작하는 [Where God Weeps]와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시간 매주 목요일 19:00 (본)
토요일 01:00, 20:40 월요일 13:00 (재)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